



원래 인간사회의 문명이란 단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집단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생긴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문명 등 어느 고대문명을 보아도 그것이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도시란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자연의 커다란 힘에 대항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낸 '일대발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의 현대 문명에서는 자연이 외경(畏敬)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첫근감을 느끼거나 공존해 가자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별로 목격하지 못한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도시 주위에서 대규모의 산림 벌채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벌거숭이 산이 생기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숲을 잃은 대지는 빗물을 저장할 수 없어 척박한 땅이 된다. 척박한 토양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샘물은 고갈돼 인간도 살 장소가 없어진다. 이것이 중국의 환경문제다.

이것은 지중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레바논은 광대한 삼림(森林)이 있었다 하는데, 선박을 만들기 위해 마구 벌채해서 고대의 삼당히 이른 시기에 광대한 숲이 소멸해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지중해의 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도시문명은 자연을 파괴하고 산림자원을 소비해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유럽의 주요국에서 산림벌채에 대해 최후까지 저항한 곳은 독일일 것이다. 독일의 땅은 옛날에 '게르마니아'라고 불렀는데, 이 땅에는 끝없이 깊은 삼림

이 있었다. 여기에 사는 드루이드들은 숲에 있는 신을 믿고 숲을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기독교 포교자들에게 저항했는데, 결국 기독교가 승리를 거두고 게르마니아의 숲은 차례로 벌채를 당했다. 그 결과 17세기경까지 독일 삼림의 8할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런 형태의 자연파괴는 적어도 공업화에 의한 경제개발이 전개되기 이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예로부터 우리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나라'로 불려왔는데, 거기에 산과 바다를 소중하게 다루고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동네 산에 산신제를 지내거나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믿는 자연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같은 애니미즘적인 자연신앙은 고대 세계 여러 곳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그런 소박한 자연숭배사상에 기초를 둔 토착무속(사상)에 외래 종교인 불교가 융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래 불교사상에는 '자연숭배'의 요소는 없다.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할 뿐이다. 불교는 인간에게 고뇌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는 '번뇌 망상의 불꽃'을 끄고 자기 내면세계에 있는 본래의 자기(불성)를 찾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노력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 지 자연의 신성함이나 영성에 의존하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수행자 중에는 산속에 들어가 정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의 거룩한 환경

환경파괴 · 자원고갈은 인류 존속의 문제

자연은 성스러운 존재, 인간은 그 덕택으로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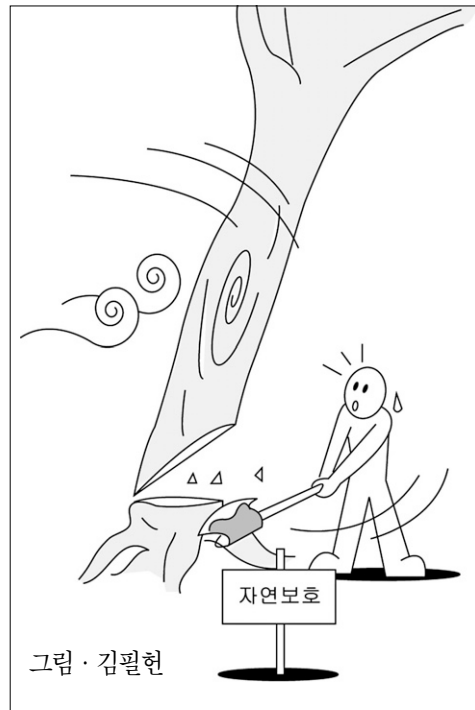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속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지, 산신을 믿거나 자연 그 자체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緣起)사상은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영원의 진

리다. 이 우주 공간이 불국토이므로 세계의 어느 지역의 인간이나 길거리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풀잎에도 불성이 있다. 그것은 '산천초목국토 실개불성(山川草木國土 悉皆佛性)' 또는 '산천초목국토 실개성불(山川草木國土悉皆成佛)'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산이나 숲은 인간의 마음대로 무의하게 벌채하면 업(業)으로 쌓이게 된다. 산속에 사는 새의 울음소리나 벌레의 소리가 그대로 인간의 성불을 도와주고 기원하는 경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은 성스러운 존재이고, 인간은 그 덕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상이 불타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일신교에서는 '자연이란 정복 · 관리 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기본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사상에서는 '자연 그대로', 다시 말해서 매마른 도시를 둘러싼 소박한 자연림은 인간생활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환경적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이나 쾌적함을 위해서도 필요한 녹색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데도, 마구 파헤쳐 주거지역화 해버리는 정책이 남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일신교적 토양에서는 예술품이나 공예품에서도 뛰어난 인간의 센스를 정교하게 가공하고 다양하게 의장(意匠)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상품이 된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환경과 공생하며, 자연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처럼 소비문화가 발달할수록 자연과의 공

생이 더욱 절실해져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려면 시장경제적 논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산업혁명 이래 근대 자본주의가 걸어 온 역사, 그것을 지탱해 온 철학을 재검토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내지 않는 한, 인류는 대량인구의 기아나 기근, 소득격차와 자원쟁탈전쟁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의 글로벌화 그 자체는 실상 쉽게 중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지금 고도로 분업화되고 있어 글로벌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어 그 흐름을 역류시킨다면 수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나 공업용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며, GDP의 40% 이상을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 아래서는 글로벌리즘에 제동이 걸린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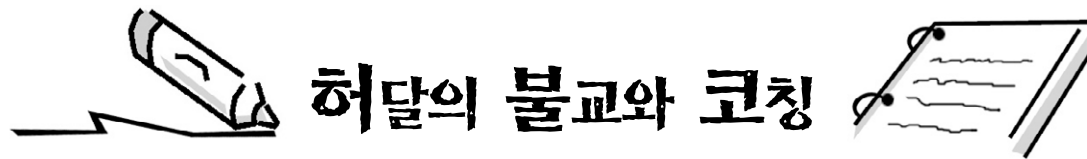
이번의 미국발 경제 불황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글로벌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가 암묵의 전제로 하고 있던 미국적인 가치관이나 일교도 사상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고, 나아가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정말 공유해야 할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말을 바꾸면 미국식 자본주의나 근대서양사상의 어느 곳에 잘못이 있고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인 것이다.

■ 인문대 경제학과 교수

②1 목표

코칭 전문과정에서는 코칭이 어느 정도 제대로 오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강력한 질문이 된다.

-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로부터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러나 영무채처럼 이런 류의 '강력 질문' 들을 외어서 적당한 기회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같은 질문이라도, 고객 쪽에 자기성찰의 환경이 무르익었는가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코치가 고객 내면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질문을 시의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코치의 내공이라 할 것이다.
-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
- 하지만, 초음파를 발산해 시각을 대신하는 박쥐는 목표물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듣는 귀가 눈이 되는 셈이니 시각과 청각의 구분 또한 방편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중생계의 크고 작은 고뇌의 소리를 자비로써 바라보는 글자 그대로의 관음(觀音)은 어떤가?
-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은 경경을 넘어서는 오감(五感)의 격외(格外) 능력이므로 역시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 이름을 붙여 '팩트적 결정'이라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를 질문으로 삼아 묻고 그 질문이 강력한 질문이라고 추켜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객과 코치 사이에 연결이 이뤄졌을 때, 코치가 진정성에 입각해 질문하면 고객은 그것이 어떤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용해 고객은 과거 언젠가 만들어 놓은 자신의 목표가 아직도 변함없이 삶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재검토해 보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라는 것은 이루기도 전에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런 점이 바로 변화와 성숙을 거듭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의 한 부분이다.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이미 희미해졌는데, 계속 그 마음을 붙들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

이다. 원래 품었던 목표가 의미를 상실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이때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위에 기술한 코칭 질문이므로 강력질문이라 한 것이다.

한 친구가 필자에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을 보내왔다. 아들이 무언가 하기는 하겠다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들어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나더러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른 바 '커리어 코칭'을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머리 속에 그려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수제 햄버거' 집 주방장 겸 주인, 아니면 패션상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의 경영주라는 일견 엇갈린 엉뚱한 두 가지 대답이 나왔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결론만 이야기 한다면, 그는 필자와의 커리어 코칭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만드는 자신만의 기업을 갖는 것'이라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그 성취를 위한 첫 단계로서, 세계 브랜드 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야심만만한 중소기업의 패션 액세서리 기업에 지원해, 이 기업이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성장한다면 이 회사와 함께 자신도 세계적인 패션업자로 성장하도록 자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은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기업을 찾아 이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포부와 조건을 밝히고 선발되었다.

삭터 거웨인이란 사람이 쓴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긴 제목의 책에서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장 소망하는 것을 상상력으로 창조해 내는 방법 중 하나인 시각화(Visualization)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임을 새삼 깨닫게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각화된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각화라고 표현했지만 청각화, 촉각화 등 오감의 격외처럼까지 통틀어 결국은 마음이나, 환(幻)의 세계를 통섭하는 '일체유심조'의 깊은 뜻에는 미치지 못하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하겠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진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땀이 주무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갈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

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받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영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고자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나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수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4차 : 환신 받고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나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시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을 질병이 인명을 훔치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